

# 특용 밀원수 세미나 개최

## 헛개나무 등 특용 밀원수종 우수품종 소개 시험지 현장에서 실감나는 현지토론 진행돼



특용 밀원수종 개발 현장세미나 전경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6월 23일 경기종합노동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특용 밀원수종 개발 현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림과학원은 아까시 나무 등 주요 밀원의 급격한 감소로 대체 밀원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헛개나무 등 육성품종의 밀원 조성 연구 성과의 현지적용 기술을 조기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수 양봉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아까시나무에 대한 양봉농가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위험부담도 크다”며 “다양한 밀원수종 개발과 식재로 양봉산업의 기반

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용 밀원수종 우수품종 개발(국립산림과학원 김세현 박사) △한국양봉산업의 현황 및 전망(한국양봉농협 조상균 조합장) △친환경 양봉관리(국립농업과학원 이명렬 박사) △기능성 밀원수종 특화사업의 현장활용(칠곡군농업기술센터 전창우 계장) △아까시나무 밀원수 신품종 개발 현황(서울대학교 이경준 교수) 등의 주제가 발표됐으며, 원평시험지로 이동하여 특용 밀원수종 소개 및 현지토론(국립산림과학원 이갑연 과장)이 진행됐다. **양봉**



원평시험지 현장에서 특용 밀원수종을 소개하고 있다.